2024

이감 **인사이트**

insight

2025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수능분석자료집**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수능	2024학년도 대수능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메가스터디	진학사	EBS
1	89/85	95/91	88/83	86/84	87/85
2	80/77	91/86	80/75	79/76	79/77
3	72/70	85/81	71/66	71/68	71/69
4	64/62	76/73	63/58	61/59	61/59
5	55/53	65/63	50/45	51/49	51/49
6	43/41	52/48	36/31	39/37	37/35
7	28/26	36/33	22/18	28/26	26/24
8	19/17	23/21	12/8	20/18	18/16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01 예상 등급컷을 고려했을 때 작년 수능은 물론,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운 시험이었다. 난도를 확보하는 방식은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하되, 이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불명료한 선지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선지의 의도와 의미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02 예상 등급컷 간의 격차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온 '화법과 작문'이 이번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물론 '언어와 매체'가 그 이상으로 까다로웠던 만큼 특별히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이전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화법과 작문'을 마냥 선호할 이유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2024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0	독서	3	70%	⑤	9%	12%	15%	34%	30%
2위	15	독서	2	70%	④	13%	24%	13%	30%	19%
3위	30	문학	2	70%	①	30%	15%	19%	28%	8%
4위	16	독서	3	65%	⑤	9%	11%	23%	22%	35%
5위	40	화작	3	65%	①	35%	13%	19%	24%	9%
6위	45	화작	3	65%	①	35%	7%	24%	16%	18%
7위	27	문학	3	62%	⑤	12%	9%	11%	31%	38%
8위	34	문학	3	62%	④	4%	14%	30%	38%	14%
9위	5	독서	2	60%	③	5%	17%	40%	19%	19%
10위	28	문학	2	59%	①	41%	34%	11%	8%	6%

독서	4	문학	4	화작	2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4문항, 문학 4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 오답률 TOP 10에 독서만 7문항이 포함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문학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은 9월 모의평가부터 확인된 양상으로,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02 독서 영역에서는 사회 지문 1문항[→ 5번], 기술 지문 1문항[→ 10번],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 2문항[→ 15,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10, 16번 문항은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다면, 15번 문항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등장한 관점 판단 유형의 문항으로 당시에도 오답률이 67%로 매우 높았는데, 해당 유형이 낯선 수험생들은 문항을 해결하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해당 유형을 세 차례 이상 다루었으므로, 이감 모의고사를 풀어 본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항을 해결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5번 문항의 경우 단순한 내용 확인 유형의 문항이었는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다. 특별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답 선지에 포함된 함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03 문학 영역에서는 갈래 복합 1문항[→ 27번], 현대소설 2문항[→ 28, 30번], 고전시가 1문항[→ 34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작년 수능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학 문항의 오답률이 25%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9월 모의평가 이후로 확실히 기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독서로만 변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독서와 문학 모두에서 변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때는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에 각각 적정 시간을 잘 배분하는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해 둘 필요가 있다.

04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2문항[→ 40, 45번]이 포함되었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오답률이 50%인 화법과 작문 문항이 등장했으므로,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서는 더더욱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조는 선택과목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2024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0	문학	2	65%	①	35%	11%	18%	30%	6%
2위	37	언매	2	61%	①	39%	12%	21%	14%	14%
3위	35	언매	2	60%	④	11%	16%	13%	40%	21%
4위	15	독서	2	57%	④	10%	21%	8%	43%	18%
5위	34	문학	3	54%	④	2%	15%	25%	46%	13%
6위	10	독서	3	53%	⑤	5%	9%	10%	29%	47%
7위	16	독서	3	52%	⑤	5%	8%	17%	22%	48%
8위	27	문학	3	51%	⑤	9%	9%	7%	27%	49%
9위	28	문학	2	51%	①	49%	31%	9%	7%	4%
10위	31	문학	3	51%	②	8%	49%	15%	8%	20%

독서 3 문학 5 언매 2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3문항, 문학 5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 오답률 TOP 10에 독서 7문항, 언매 3문항이 포함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많은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평균 오답률은 화법과 작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번 문학은 상당히 까다로웠을 테고,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02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2문항[→ 35, 3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고, 이는 전부 언어 영역이다. 37번 문항은 새로운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용언의 활용 양상과 음운 규칙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난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35번 문항은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를 제시문으로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물었는데, 여기서 묻는 내용이나 함정을 만드는 방식이 수험생들이 배경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언어와 매체 영역이 어려울 것

임을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시험에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전에서 느끼는 압박감으로 인해 평소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언어와 매체 영역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압박감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판단 경로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감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대할 때에도 틀렸는지만 확인하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함정이 담겨 있는지, 자신이 놓친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에 이런 유형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03 독서 영역에서는 기술 지문 1문항[→ 10번],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 2문항[→ 15,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10, 16번 문항은 전통적으로 난도가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다면, 15번 문항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등장한 관점 판단 유형의 문항으로 당시에도 오답률이 63%로 매우 높았는데, 해당 유형이 낯선 수험생들은 문항을 해결하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해당 유형을 세 차례 이상 다루었으므로, 이감 모의고사를 풀어 본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이 문항을 해결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04 문학 영역에서는 갈래 복합 1문항[→ 27번], 현대소설 3문항[→ 28, 30, 31번], 고전시가 1문항[→ 34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작년 수능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학 문항의 오답률이 15%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9월 모의평가 이후로 확실히 기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독서로만 변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독서와 문학 모두에서 변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때는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에 각각 적정 시간을 잘 배분하는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해 둘 필요가 있다.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Ⅱ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전체적으로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시험이었다. 지난 6월 모의평가까지는 압축적으로 구성된 짧은 글을 지향하였다면, 9월 모의평가부터는 상대적으로 지문의 정보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성의 측면에서는 초점이 명료하거나 주제의식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며,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글이 아님에도, 주제통합형 지문처럼 지문 분량이 긴 경우에는 선지 판단에 참조해야 할 정보를 찾지 못해서 헤맨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문의 난도나 구성이 내년에도 반복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평이한 지문과 까다로운 선지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평가원 시험들의 경향을 참조하여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지문 평가**

-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독서론[→ 1~3번]으로 시작하여 주제통합형[→ 12~17번]으로 끝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독서론은 변별력에 초점을 두는 대신 각각의 문항에서 참조해야 할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 주었는데, 이는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경향이다. 3번 문항은 '초인지'를 적용하는 독서 활동을 <보기>로 제공하였는데, 형식상으로는 낯설어 보이지만 전형적인 개념 적용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도 난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실상 지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각각의 선지들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기할 점이라면 이 역시 수능특강 282쪽을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 사회 지문은 '선거 보도 방식과 선거 방송 토론회'를 주제로 수능특강 137쪽이 연계되었다. 연계 체감을 높이기 위해 첫 문단에서 연계 지문의 내용을 사실상 재진술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특별히 까다로운 내용은 없다. 이를 연계하여 출제한 이감 모의고사의 지문이 훨씬 복잡한 논의를 다루었다. 수능 지문에서는 오히려 정보가 느슨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5번 문항에서 묻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문단2에서 찾아야 하는지, 문단4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헤맨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 기술 지문은 '결측치와 이상치의 배제'를 주제로 수능특강 199쪽이 연계되었다. 문단3까지는 연계 체감을 높이기 위해 연계 지문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나머지 두 문단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을 때 쓰이는 A 기법에 대해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정보의 밀도가 높은 까다로운 지문으로, 이를 B 기법과 비교하는 <보기> 문항도 출제의 취지와는 별개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불명료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참고로 A 기법은 RANSAC, B 기법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토대로 하는 기법인데, 올해 이감 모의고사에 두 기법을 비교하는 지문이 출제되었으므로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노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수능특강 242쪽이 연계되었다. 이처럼 독서는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EBS와의 연계율을 100%로 유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연계 방식은 내년 수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적어도 지문에 한해서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다만 수능특강 지문에서는 '한비자'에 더 초점을 둔 만큼 해당 지문의 경우 연계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정보들이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것에 비해 판단해야 하는 선지들은 추상도가 높아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 **문항 평가**

- 6월 모의평가까지는 선지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이해한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짧은 선지일수록 해당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반면 9월 모의평가부터 선지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올해 수능까지도 이어졌다. 3행이 넘는 선지를 한 호흡에 처리해야 함에 따라, 선지를 독해할 때에도 지문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9월 모의평가에서 등장한 15번 유형이 재등장하였는데, 해당 유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 여기서는 '왕안석, 오징']을 ㄱ~ㄹ 각각에 대하여 전부 따져 봐야 한다. 즉 총 8번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결국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공통점은 지문 독해와는 별개로 선지 독해가 상당히 중요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문이 그 자체로 '함정'이어서 정확한 지문 독해만 이루어지면 각각의 선지들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판단되었다면, 올해 수능은 선지 곳곳에 '함정'들이 배치되어 있어 판단이 까다로워졌으므로 선지 독해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02. 지문 분석

[4~7] (사회) 선거 보도 방식과 선거 방송 토론회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B

- 선거 방송에서 '경마식 보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문단2의 ㉮, ㉯, ㉰]과 언론 스스로의 자구적 방안[→ 문단3의 '선거 방송 토론회']을 단순 열거한 지문이다. 특별히 어떤 초점이나 주제 의식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단2, 3의 각종 규정들에 언급되어 있는 세부 정보들[→ '6일 전부터', '오차 범위 내',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등]에만 충분히 유의하였다면 막힐 만한 대목은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37쪽에서 다룬 부수 개념소인 '경마식 보도'가 해당 지문에서도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문단1은 연계 지문의 충실한 재진술이었으나, '경마식 보도'가 지문의 핵심은 아니었으며, 문항에서도 4번 문항에서 단순한 내용 일치 유형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즉 연계 체감은 높았지만 효용은 비교적 낮았다.

[8~11] (기술) 결측치와 이상치의 배제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B

-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결측치와 이상치를 배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그중에서도 이상치의 배제를 위한 A 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지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이 매우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의 직선'을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상치를 배제한 점들만으로 해당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임을 문단4에서 읽어 내야 하는 등, 요구하는 독해의 깊이가 상당하다. 해당 지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감으로 기출 독서』 '지문 분석'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99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이상치, 결측치'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또한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9, 10번 문항의 각 선지들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연계 체감은 물론 효용까지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지문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A 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있으며, A 기법은 이감 모의고사에서 <보기>의 B 기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써 이미 한 차례 다룬 바가 있으므로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2~17] (인문-인문)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노자에 대한 이해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전형적인 관점 중심의 지문으로 (가)에서는 '노자'에 대한 '한비자'의 이해를 살핀다면, (나)에서는 '노자'에 대한 다양한 유학자들의 이해를 시대순으로 살피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자의 '도'를 한비자와 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을 읽어 냈어야 한다. 다만 그 점을 제외하면 각각의 관점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서, 뚜렷한 글의 초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선지 판단을 위해 참조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느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15, 16번 문항의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242쪽의 (가)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한비자, 노자'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연계 체감은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겹치는 내용은 거의 없었던 만큼 효용은 가장 낮았을 것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한비자'의 해석을 비롯하여 '노자'에 대한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유학자들의 해석을 여러 차례 다루었으므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노자'에 대한 유학자들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15번

경로 설계

이러한 유형의 경우 선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문을 참조하여 (나)의 '왕안석'과 '오징'이 각각 다음 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를 판단해 두어야 한다. 해당 유형은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보기> 설명

1)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표현은 헷갈리지만, '도'의 실현이 '만물'에 선행하는 것[→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만물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먼저 왕안석은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기'의 작용[→ '도'의 실현]은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한다고 보았다[(나)의 문단2]. 그러므로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오징은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이해하여,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다[(나)의 문단3]. 즉 '도'를 만물에 앞서 존재하는 근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왕안석	오징
ㄱ	×	×

2)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 왕안석은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에 맞추어 인간 사회의 규범 역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나)의 문단2]. 즉 인간 사회의 규범을 '근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반면 오징은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되며,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라고 보았다[(나)의 문단3]. 그러므로 ㄴ에 동의할 것이다.

	왕안석	오징
ㄱ	×	×
ㄴ	×	○

3)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 왕안석은 '도'를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되며, '기'가 변화하는 것처럼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나)의 문단2]. 즉 그에 따르면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현상 세계가 시시각각 변화하며 형성된다[→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ㄷ에 동의할 것이다.

➡ 또한 오징은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되며, 인의예지 같은 유학 이념이나 사회 규범 및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나)의 문단3]. 그러므로 ㄷ에 동의할 것이다.

	왕안석	오징
ㄱ	×	×
ㄴ	×	○
ㄷ	○	○

4)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왕안석은 '기'[→ '도']가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하며,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의 문단2]. 그러므로 ㄹ에 동의할 것이다.

➡ 오징은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이해했고, 인간 사회의 규범과 질서 체계는 이 불변하는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보았다[(나)의 문단3]. 그러므로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왕안석	오징
ㄱ	×	×
ㄴ	×	○
ㄷ	○	○
ㄹ	○	×

정답 설명 : ④

1) 오징은 ㄱ과 ㄹ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왕안석	오징
ㄱ	×	×
ㄴ	×	○
ㄷ	○	○
ㄹ	○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28 2024학년도 수능_기술

결측치와 이상치의 배제

출처 : 『이감으로 기출 독서』

정답 확인

8 ③ 9 ① 10 ⑤ 11 ②

지문 평가

대부분의 정보량이 마지막 두 문단에 몰려 있다. 문단3까지의 설명을 통해 글의 초점이 결측치와 이상치의 배제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상치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A 기법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과학 – 결측치, 이상치

결측치, 대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상치, 대푯값, 정상치 집합, 후보 직선, 문턱값, 최종 후보군

문단 1 데이터의 정확성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결측치'와 '이상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낮추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단 2 결측치의 배제

1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 먼저 결측치는 누락된 값이므로 채울 필요가 있는데, '대체'와 같은 방법들이 쓰인다. 다음과 같이 표에 마지막 값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채워져야 하는 결측치에 해당한다.

2	1	3	2	2	

맥락 짚기 이때 결측치를 대체하는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층위의 개념들이 열거될 때는 이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평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앞선 예시에서는 나머지 값들의 평균[→ (2+1+3+2+2)÷5]인 2가 대체하는 값이 된다.

2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하는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을 가리킨다. 크기가 같은 값[→ 2]이 있더라도, 다음처럼 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앙인 세 번째 값[→ 2]이 대체하는 값이 된다.

1	2	**2**	2	3	

➡ 다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라면 하나의 값이 아닌, 두 개의 값이 중앙에 위치한다[→ 가령 데이터가 4개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값이 중앙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둘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삼는다.

3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 마지막으로 '최빈값'에 대한 설명이다. 예시에서는 2가 최빈값에 해당한다.

4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주목 대체하는 값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는 데이터 값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순위가 있는 값'에서는 가장 가운데 순위인 중앙값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처럼 정리하면서 읽었다면, 세부 내용을 더 쉽게 챙겨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데이터의 평균값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 값이 순위가 있는 값	데이터 값이 문자

문단 3 이상치의 배제

1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

➡ '결측치'에 이어서 '이상치'에 대한 설명이다. 누락된 값은 아니지만, 그 값 자체가 너무 튀는 값을 '이상치'라 한다. 그래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는 그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문단1].

2 ……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측정 오류가 없었더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 이상치는 주로 측정 오류로 인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잘못 삽입된 경우 발생한다.

주목 그러나 정상적으로 측정된 값이라도 이상치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측정 오류가 아닌 실제 값이라도[→ 가령 실제 연봉이 유달리 많은 경우], 그 값이 데이터의 특징을 훼손할 정도로 유달리 크거나 작다면, 이는 이상치로서 배제되어야 하는 값이다.

3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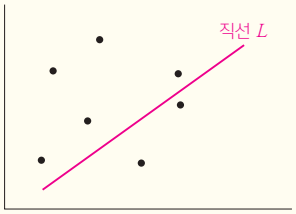
➡ 이렇게 '이상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유달리 많은 연봉'이 평균을 그만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주목 반면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하여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구한다[문단2-2]. 이상치는 중앙에 놓이지 않으므로[→ 가령 '유달리 많은 연봉'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맨 끝에 위치할 것이다.],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푯값으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단 4 평면상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이상치

1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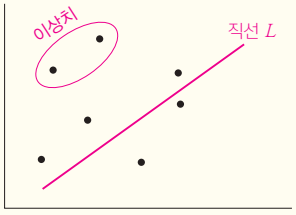
맥락 짚기 '평면상에 있는 점들, 가상의 직선'과 같은 묘사가 주어졌으므로, 지금부터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도식화를 동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지문의 설명도 도식화를 전제로 한 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점들이 직선 L의 주변에 모여 있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떠올릴 수 있다.



참고 여기서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란 2차원 좌표 평면에 위치한 (1, 3) 같은 값을 뜻한다. 문단3까지는 데이터 값이 '연봉'과 같이 하나의 값일 때를 다루었다면, 문단4부터는 데이터 값이 (연봉, 나이)와 같이 두 개의 값의 조합일 때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주목 직선 L은 '대부분의' 점들과 가까이 위치하지, '모든' 점들과 가까이 위치하지는 않는다. 이때 직선 L과 멀리 떨어진 점들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인 '이상치'에 해당한다.



문단 5 A 기법을 사용한 직선 L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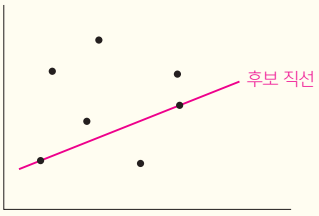
1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

주목 여기서 '직선 L'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문단4-1]. 이상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상적인 값들과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직선 L을 찾는 것은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려는 시도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A 기법은 결국 지문의 초점과 직결되는 설명에 해당한다[문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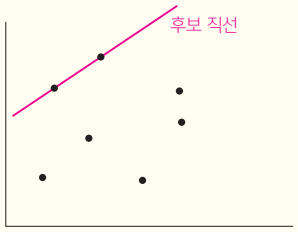
2 ……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

맥락 짚기 A 기법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과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 첫 번째로 두 점을 골라 그것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다. 이때 두 점을 가리켜 '정상치 집합'이라 하는데, '정상치 집합'을 구성하는 두 점은 곧 '정상치'에 해당할 것이다. 맥락상 정상치는 '이상치'와 달리 유달리 크거나 작지 않은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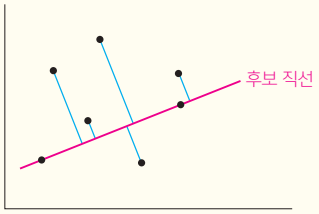


참고 헷갈리기 쉬우나, 여기서 선택된 두 점은 정상치로 '간주'될 뿐, 정상치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두 점은 '무작위'로 골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이상치가 선택되어 후보 직선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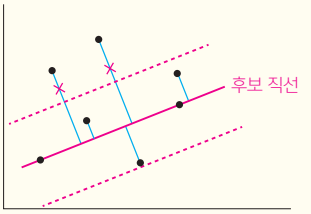


3 ……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 두 번째로 [정상치 집합이 아닌]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한다. '정상치 집합'에 이미 속해 있는 두 점은 후보 직선을 지나고 있으므로 [→ 거리가 0이므로] 후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다.



➡ 이어서 세 번째로, 그중에서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만을 '정상치' 집합에 포함한다.



주목 이때 처음에 무작위로 고른 두 점이 이상치와 가깝거나,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이상치인 값이 '정상치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4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 네 번째로 해당 후보 직선에 따른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으로 삼는다. 즉 최종 후보군에는 문턱값보다 많은 정상치를 갖는[→ 문턱값보다 많은 점들이 허용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후보 직선만이 저장된다. 여기서 '문턱값'은 일종의 임곗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후보 직선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 만약 문턱값이 3개라면, 예시에서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5개이므로 해당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다. 이때 처음부터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된 두 점을 제외하고 3개라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문턱값'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주목 중요한 대목이다. '문턱값'을 두는 이유는 '이상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상치는 다른 값에 비해 튀는 값이므로[문단3-1], 나머지 정상치들에 비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정상치가 아닌 이상치에 가까이 위치하는 후보 직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6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 이렇게 네 단계를 일정 횟수 동안 반복함으로써 '최종 후보군'을 구한다.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 직선들은 모두 정상치 개수가 '문턱값'보다는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정상치가 가장 많은 직선을 '직선 L', 즉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으로 삼게 된다[문단4-1].

주목 A 기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무작위로 두 점을 골라 '후보 직선' 긋기
⇩
❷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간의 거리 구하기
⇩
❸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 구하기
⇩
❹ 문턱값과의 비교를 통해 '후보 직선'의 '최종 후보군' 포함 여부 결정
⇩
❶~❹를 일정 횟수 반복
⇩
'최종 후보군' 중에서 정상치 개수가 가장 많은 후보 직선을 '직선 L'로 선택

|참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후보 직선 하나를 찾는 것이 목표임에도 왜 그 전 단계에서 '문턱값'보다 정상치 개수가 많은지를 판단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지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문턱값'과의 비교가 없다면 최종 후보군에 후보 직선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연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어휘 다지기

* 대체 : 다른 것으로 대신함.
* 복수 : 둘 이상의 수.
* 석차 : 성적의 차례.
* 왜곡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8	세부 정보 파악					정답 ③
선택률	화작	① 4%	② 3%	③ 77%	④ 9%	⑤ 7%
	언매	① 2%	② 1%	③ 86%	④ 6%	⑤ 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설명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경로

1) '이상치'는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측정 오류에 의해 주로 생긴다[문단3-1, 2].
2)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측정 오류가 없었더라도]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프로 선수들의 연봉 데이터에서 '유달리 많은 연봉'도 이상치에 해당한다[문단3-2].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판단 경로

1)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문단2-3].
2) 데이터가 수치가 아닌 문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빈값'이 결측치를 대체한다[문단2-4].
3) 이는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경로

1)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이 직선 L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문단4-1].
2) 데이터의 특징을 '대푯값'과 같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문단3-3], 직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판단 경로

1) '중앙값'은 결측치를 대체하는 값들 중 하나로[문단2-1],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문단2-2].
2) 이때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는다[문단2-2].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판단 경로

1) '이상치'는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측정 오류에 의해 주로 생긴다[문단3-1, 2].
2) 즉 측정 오류가 발생했어도, 다른 값과 크기가 비슷하다면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측정 오류'가 이상치의 생성 원인일 수 있지만, 이상치의 생성 조건은 아닌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9	세부 정보에 근거한 추론					정답 ①
선택률	화작	① 60%	② 6%	③ 8%	④ 12%	⑤ 14%
	언매	① 76%	② 3%	③ 4%	④ 8%	⑤ 9%

윗글을 참고할 때,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로 설계 특정 문맥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기할 점이라면 주변 문맥에 마땅한 근거를 주고 있지 않아서, 제법 추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중앙값'이 데이터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평균'과 '중앙값'의 구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문단2].

평균	중앙값	최빈값
데이터의 평균값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 값이 순위가 있는 값	데이터 값이 문자

○ 정답 설명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문단2-2]. 그렇다면 극단에 있는 '이상치'는 정렬했을 때 맨 끝이나 맨 앞에 위치할 것이다. 즉 중앙에 위치한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2) 반면 '평균'은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산 과정에서 이상치가 반영되므로,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문단2-2].
2) 정렬을 위해 나열되는 데이터에는 이상치도 포함된다. 다만 '이상치'는 정렬했을 때 맨 끝이나 맨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값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이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문단2-2]. 이는 '평균'을 구하는 과정과는 별개이다.
2) 또한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평균을 찾는 과정과 중앙값을 찾는 과정 중 무엇이 복잡한지를 이 글에서는 다룬 바가 없다.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이상치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 반드시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대푯값'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라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데[문단2-2], 가령 두 값이 3, 5라면 중앙값은 데이터에는 없던 4가 된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10	지문과 〈보기〉 내용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선택률	화작	① 9%	② 12%	③ 15%	④ 34%	⑤ 30%
	언매	① 5%	② 9%	③ 10%	④ 29%	⑤ 47%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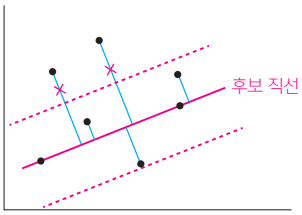
경로 설계 문단5에서 다룬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통적으로 직선 L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상치의 영향을 배제하려고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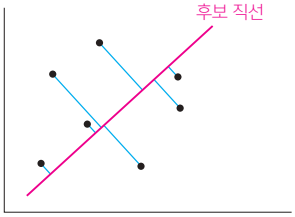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 A 기법이 임의의 두 점을 골라 후보 직선을 긋는다면[문단5-2], B 기법은 임의의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즉 두 점을 반드시 지나지 않아도 된다.

➡ 무엇보다도 A 기법에서는 임의의 후보 직선에 대해 '정상치 집합'을 구한다. 즉 어떤 점을 정상치로 간주할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문단5-3]. 최종적으로 그중에서도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 정상치 개수]가 가장 많은 후보 직선을 직선 L로 삼는다.



➡ 반면 B 기법에서는 '모든 점'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후보 직선을 찾아서 직선 L로 삼는다.



2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주목 B 기법의 문제점은 애초에 직선 L이 '모든 점'과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려면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들의 주변에 있어야 하므로[문단4-1], 이상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문단4-2].

➡ 정리하면, B 기법은 '모든 점'과 가까이 위치한 직선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치를 포함해서' 직선 L을 찾으므로]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을 찾지 못한다. 반면 A 기법은 '정상치 집합'을 고려함으로써, '대부분의 점들'과 가까이 위치한 직선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A 기법이 B 기법보다 더 적합한 방법임을 결론으로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정답 설명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판단 경로

1)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무작위로 고른 두 점을 지난다. 이 두 점은 정상치 집합에 포함되므로[문단5-2], 무작위로 고른 점에 '이상치'가 포함된다면,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2) 임의로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것은 B 기법도 마찬가지이므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경로 이탈 두 기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A 기법이 B 기법보다 더 적합한 방법임을 읽어 낸 학생일수록 정답 선지를 찾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오답인 ②, ③, ④번 선지가 A 기법이 B 기법보다 더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답인 ⑤번 선지는 핵심 내용에서 비껴 나간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정답 선지를 만들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 두도록 하자.

× 오답 설명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판단 경로

1) A 기법은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문단5-2].

2) B 기법은 후보 직선을 가정할 때, 몇 개의 점을 지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보기〉-1].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판단 경로

1)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무작위로 고른 두 점을 지난다[문단5-2]. 그러므로 이상치를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할 수도 있다.

2) 또한 B 기법도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은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판단 경로

1) '이상치'는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다[문단3-1].

2) 그렇다면 A 기법에서 이상치를 지나는 '후보 직선'은 나머지 점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적을 것이다. 즉 해당 후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이다[문단5-5].
3) 그러므로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4) 그러나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보기〉-2]. 즉 이상치를 지나지는 않는다.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판단 경로

1) A 기법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해당 후보 직선을 버린다[문단5-4].
2) 즉 문턱값과 비교되는 것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이지 '이상치의 개수'가 아니다.
3) 또한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보기〉-2]. 즉 이상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는 인상에만 의존한다면 고르기 쉬운 선지이다. 이러한 함정은 항상 의식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문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정상치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점들은 모두 '이상치'로 간주된다. 선지의 '이상치의 개수'는 본래 이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정답 ②
선택률	화작	① 4%	② 83%	③ 5%	④ 4%	⑤ 4%
	언매	① 2%	② 93%	③ 2%	④ 1%	⑤ 2%

문맥상 ⓐ~ⓔ(ⓐ 나타내기, ⓑ 빠져, ⓒ 생긴다, ⓓ 지나는, ⓔ 멀어)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설명

② **ⓑ : 누락(漏落)되어**

판단 경로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의 '빠져'는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선지의 '누락되어'는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지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① **ⓐ : 형성(形成)하기**

판단 경로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의 '나타내기'는 '어떤 일의 결과나 징후를 겉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선지의 '형성하기'는 '어떤 형상을 이루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 : 도래(到來)한다**

판단 경로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의 '생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선지의 '도래한다'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 : 투과(透過)하는**

판단 경로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의 '지나는'은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뜻이다. 선지의 '투과하는'은 '장애물에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하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 : 소원(疏遠)하여**

판단 경로

'거리가 너무 멀어'의 '멀어'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다. 선지의 '소원하여'는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감이 만들면 기출문제집도 다릅니다!

이감으로 기출 독서

수능 대비의 기본이자 필수인 기출문제,
이감이 제대로 된 국어 기출 학습법을 제공합니다.

01. 출제 경향

▸ **총평**

어려웠다. 작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하는 문항보다, 지문의 세부 논리를 분석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난도를 높였다. 가령 산문 갈래 지문의 경우 그동안 제시되어 오던 포괄적인 내용 이해 문항 대신 등장인물을 지목하거나 표지를 제시하고 세부 내용의 논리를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또 예년과 달리 모든 지문에 ㉠~㉤, ⓐ~ⓔ, [A]~[C]와 같은 표지를 활용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위해 주어지는 굵은 글씨체 표기도 거의 해 주지 않아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위주로 문학을 학습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	작자 미상, 「김원전」	수능완성 145쪽 (지문 후반부가 수능완성 수록 부분과 겹침.)
현대시 + 수필	6	김종길, 「문」	비연계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수능특강 107쪽
		유한준, 「잊음을 논함」	비연계
현대소설	4	박태원, 「골목 안」	비연계
고전시가	3	김인겸, 「일동장유가」	수능특강 66쪽
		유박, 「화암구곡」	비연계

▸ **연계 평가**

- EBS 연계 학습의 체감은 예년보다 낮은 편이었다. 제시된 7작품 중 4작품이 비연계였으며, 이 중 작가 연계 작품도 없었다. EBS 연계 작품 중 2작품은 수능특강에서, 1작품은 수능완성에서 출제되었다. 고전소설의 경우 익숙한 작품이 출제되었고 또 지문 일부가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겹치기까지 했으나, 문항이 워낙 세부적인 요소를 분석적으로 묻고 있어 수험생들은 그다지 연계 학습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현대시 연계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문학 영역만 놓고 볼 때는 연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

- 산문 갈래의 경우 예년처럼 고전소설은 연계로,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출제되었다. 시가 갈래의 경우에는 각각 연계 1작품과 비연계 1작품을 짝 지어 출제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었다.
- 올해도 극 대신 수필이 출제되었다. 수능에서는 5년째 극이 아닌 수필이 출제되고 있다.
-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구성과 배치였다. 예년에는 수능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중 어느 한쪽과 좀 더 유사한 구성과 배치를 따랐다는 인상을 주는 데 그쳤던 반면,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와 완전히 동일했다. 고전 수필 문항의 난도가 높은 점도 9월 모의평가와 같다.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02. 작품 분석

[18~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김원전」

주목해야 할 작품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올해 수능 문학에서 가장 난도가 낮은 세트였다. 지문의 중략 이후 부분이 모두 수능완성 수록 부분과 겹쳤다. 그러나 중략 앞부분에 다수의 인물들이 제시되었고, 그 인물들이 모두 문제에 활용되고 있어 풀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 19번 문항은 이전의 일반적인 내용 이해 문항을 복잡하게 변형시킨 유형으로서, 올해 수능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문항이다. ㉠이라는 표지를 주고 그와 관련한 다수의 인물들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판단을 요하는 선지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세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되었다.
- 21번 문항의 <보기>에 제시된 '필연적 대결'이라는 진술의 경우, 이 작품에서 거론할 수 있는 주인공과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의 깊은 의미가 선지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단순 층위의 진술로만 제시되고 있어 그 논리의 정합성이 다소 아쉽다.

[22~27] (현대시-수필) (가) 김종길, 「문」 /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

주목해야 할 작품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중요도 B

- 세 작품 중 (다)로 제시된 수필이 수험생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다. 고전수필로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적으로 설정한 상황이 수험생들의 독해 과정에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항도 작품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작품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분석적으로 묻는 데 치중함으로써 난도를 높였다.
- 23번 문항의 경우, <보기>의 내용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작품 이해와 관련지어 볼 때, 가령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라는 진술보다는 '역사의 쇠락과 생성을 자연의 변화와 결부해 표현했다' 정도의 진술이 무난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4번 문항은 선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선지 독해에 시간을 쓰게 한다는 점에서 올해 수능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 시의 주제나 정서에 대한 이해보다 내용의 논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도록 한 문항이다.

- 25번 문항 역시 수필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세부적으로 물음으로써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다. 그런데 표지를 주고 밑줄을 친 부분이 선지 진술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표지 ⓓ는 밑줄 친 부분을 해당 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④번 선지의 판단에 더 합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27번 문항 <보기>의 경우, (나)와 (다)는 각각의 주체가 '바라보고' 사유하는 '대상'의 층위가 너무 다른 작품이라 내용 진술의 정합성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정답 선지의 경우 (다)의 인용 부분[→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에 굵은 글씨체 표기를 해 주지 않았는데, 이 인용부가 선지의 판단 순서와는 달리 지문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정답으로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문학 영역에서 오답률 2, 3위를 다투는 문항이 되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27번

정답 설명 : ⑤

1) (나)에서 '담'은 '가지'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담'은 '가지'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는 '가지'에게 '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다.

2) (다)의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은 이중 부정으로서 잊지 않는 것은 병이 맞다는 뜻이다. 이는 '잊는 것이 병'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병이 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런데 '예의'나 '분수'는 잊어도 좋을 것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하므로,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병'이라는 깨달음과는 무관하다.

오답 설명

① (나)는 '수양'을 '늘어진 가지'와 '애먼 뿌리',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가 '혼연일체'로 가지를 믿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데서 '수양'을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글쓴이는 '큰 세력'이나 '재물' 등 '잊어도 좋을 것'과, '효심'이나 '충성심' 등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의'나 '도리' 등과 같이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말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사람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해 준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담쟁이 줄기'가 '수양 가지'를 비롯한 다른 가지들과 같은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라는 말을 통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8~31] (현대소설) 박태원, 「골목 안」

-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 특히 '앞부분의 줄거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지문 전반부의 갈등 관계를 파악해야 했던 수험생들은 내용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박태원의 「천변풍경」은 수능에 두 번이나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출제된 「골목 안」도 「천변풍경」과 유사한 세태 소설로 묶을 수 있는 작품이다. 박태원은 그의 대표작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유의 문체로 인해 작품이 그리 쉽게 읽히지 않는 작가이며,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작가 박태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올해도 박태원의 작품이 두 차례에 걸쳐 출제되었는데, 이를 접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감은 「방란장 주인」이라는 작품을 다루면서 '쉼표의 연이은 사용'을 활용한 서술 기법에 대한 문항을 출제한 바 있는데, 올해 수능 31번 문항의 <보기>에서도 이 특징을 다루었다.
- 해당 지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감으로 기출 문학』 '지문 분석'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 28번 문항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을 물으면서도 지문 전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지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적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익숙한 문제 유형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변별력을 높였다.
- 29번 문항은 인물 간의 대화 부분을 크게 묶지 않고 [A], [B], [C]로 잘게 묶어 낱낱이 분석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역시 올해 수능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30번 문항은 올해 문학 영역 오답률 1위 문항이다. 본질적으로는 내용 이해 문제에 해당하나, 의미를 직설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내용을 감싼 논리를 거론하는 선지를 제시함으로써 난도를 높이고 변별력을 확보했다.
- 31번 문항의 경우,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에 대한 진술이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보기>가 아닌 지문의 내용 이해 부분에서 정답이 도출되도록 하고 있어, <보기>의 취지를 선지에서 구현하지는 못한 문항으로 보인다.

[32~34] (고전시가)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유박, 「화암구곡」

주목해야 할 작품 (2024학년도 대수능 대비) : 김인겸, 「일동장유가」 중요도 A

- 3문항에 지문도 매우 짧은 편이나, 오답률은 낮지 않다.
- (가)의 경우 2019학년도 수능 출제 작품인 「일동장유가」가 다시 출제되었다. 지문의 전반부는 늘상 제시되는 익숙한 부분이었고, 후반부는 낯선 대목이었다.
- (나)의 경우 올해 이이의 「고산구곡가」가 EBS 수록 작품이었던 것에 따른 출제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작품은 일반적인 구곡가 계열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화암'은 「고산구곡가」의 '고산'과 달리 지명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만든 정원의 이름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보기>에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화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모습에만 익숙한 수험생들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꾼 분재로 조성한 공간을 노래한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 대한 <보기>의 내용 진술 순서가 작품의 흐름과 달랐던 점도 작품 이해를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34번 문항이 문학 영역의 오답률 2, 3위를 다투는 문항이 되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34번

정답 설명 : ④

1) (가)의 화자는 출항 직후, 험난한 사행길을 떠나게 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내 신세를 생각하니 / 가뜩이 심란'하다고 한 것은,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자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는 긴 항해가 두렵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2)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강호에서의 생활에 자족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사하여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제9수>에서 화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야인 생애', 즉 벼슬하지 못한 시골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회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두어라'와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은 이 '야인 생애'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야인 생애'는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답 설명

① (가)에서 화자가 탄 배는 '대풍'과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을 만나 파도에 휩쓸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 화자는 이를 배가 '나뭇잎'처럼 하늘에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고 묘사하며, 자신이 겪은 체험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공간에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1수>에서 화자는 '층석류'와 '고사매',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을 거론하며 '화암[→ 자신이 만든 정원] 풍경이 너뿐'이라고 평하는데, 여기서 직접 가꾼 화훼들로 이루어진 개성적 공간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중략 이전 부분은 사신단이 사행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육선'에 탄 사신단이 '물속의 어룡들'이 놀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군악 소리와 함께 출항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꼬아 자란 층석류'와 '틀어 지은 고사매',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을 언급하며 개성 있는 모양으로 키워 낸 식물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와 결부해 감상하면, 이를 통해 (가)는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사행길에서 돌아온 화자는 가족들과 평안하고 '한가'한 생활을 누린다.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험한 사행길을 떠올리고 이에 대비되는 현재의 생활을 태평한 '성대'라고 부르며 만족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양류풍[→ 버들가지에 부는 봄바람]이 불어오자 이에 조응하여 '긴 파람 짧은 노래'를 부르며 여유롭게 '소일'하는 강호에서의 삶을 즐기며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2 2024학년도 수능_현대소설

박태원, 「골목 안」

출처 : 『이감으로 기출 문학』

정답 확인

28 ① 29 ④ 30 ① 31 ②

〈보기〉 감상의 내비게이션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초점화, 서술 방식, 쉼표의 연이은 사용

「골목 안」의 서술 기법	효과
서술자의 시선과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이 겹쳐 서술된 방식	서술자는 인물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인물의 말,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
쉼표의 연이은 사용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냄

감상의 경로 안내

1939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제목대로 '골목 안'을 서술의 중심 공간으로 설정하여 골목 안에 살고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보여 주는 소설이다. 서술자는 다양한 서술 기법으로 골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하는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골목 안 사람들의 다층적인 삶에 주목해 보자.

이감으로 길 찾기

토막 1 정이와 갑득이 어미의 말다툼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갑순이 할머니와 집주름 영감의 딸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갑득이 어미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 」: 정이를 나무라는 갑순이 할머니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 못했어. 네 잘못이야."」

|참고| 수록 지문 이전에 드러난 정이와 갑득이 어미의 말다툼의 사연은 이렇다. 갑득이 어미의 셋째 아들인 병득이 골목에서 똥을 누는 것을 본 정이가 '아이, 더러. 온, 자식새끼두 더럽게두 길르지?'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갑득이 어미가 카페 여급인 정이를 향해 '병득이 똥이 더러워 더러워두 제 행실버덤은 정허겠지.'라고 대꾸하면서 둘의 갈등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
자기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배우지
「 」: 갑득이 어미 같은 계층을 비하하는 태도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
갑득이 어미의 둘째 아들
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거리를
정이 갑득이 어미를 비하함
허구 그러다니……."

쩻, 쩻, 쩻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쌈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 」: 갑순이 할머니가 정이를 나무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속내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갑득이 어미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 딸 정이가 갑득이 어미와 말다툼하는 것을 알게 된 갑순이 할머니는 정이가 신분이 낮은 이와 싸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속내를 숨기고 정이를 나무란 후 데리고 들어간다. 이러한 속내를 갑득이 어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토막 2 불단집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을 둘러싼 갈등

그는 아무리 상고(고민)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갑순이 할머니)두 제엔장헐…….'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겄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 자물쇠가 채워져 불단집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은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체면상 문을 열어 달라는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 뒷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히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 갑득이 어미는 을득이에게서 전해 들은 갑순이 할머니 내외의 말을 통해 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과, 정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자기 남편인 양 서방을 불단집 뒷간에 가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뭇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숙에다 글쎄 가둬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쇨 챘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 」: 갑순이 할머니의 변명)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쇨 챌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뭇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 」: 갑순이 할머니의 변명에 반박하는 갑득이 어미)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 」: 이웃 사람들의 판단)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쇨 채실(채우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 」: 뒷간에 갇히게 된 경위를 스스로 밝히는 양 서방)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아내의 말과 달리 자신의 잘못으로 뒷간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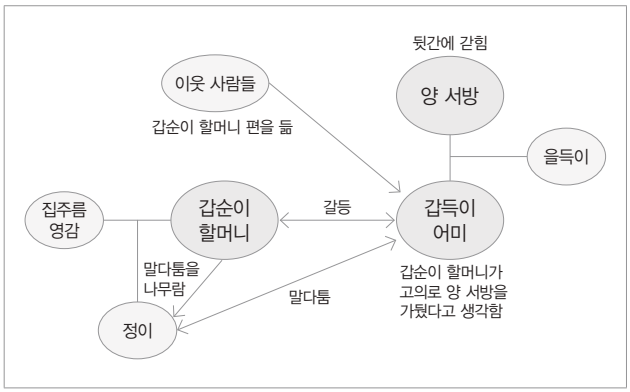
"뭐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갑득이 어미는 자기 남편인 양 서방을 불단집 뒷간에 고의로 가뒀다고 여겨 갑순이 할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양 서방은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그 상황을 듣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다.

어휘 다지기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 역성 :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 주는 일.
* 행랑것 : 예전에, 행랑에서 살던 하인을 낮잡아 이르던 말.
* 집주름 :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집주릅, 가쾌로도 부른다.
* 울화 :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
* 발명 :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또는 그런 말.
* 겸연쩍게 :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게.
* 공박할 :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할.

한눈에 보는 작품 구조



전체 줄거리

1) 경성의 한 골목 안에 불단집 식구, 갑득이네 식구, 정이네 식구 등이 살고 있다. 정이네는 과거에 양반 신분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았지만, 현재 정이 아버지인 집주름 영감은 손님 없는 복덕방을 지키고 있으며, 정이 어머니인 갑순이 할머니는 불단집에 가서 집안일을 봐주는 신세이다.
2)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의 큰아들 인섭은 브로커로 일하다 주색에 빠져 집을 나갔고, 며느리도 딸 갑순이 죽고 남편의 소식이 끊어지자 집을 나갔다. 둘째 아들 충섭은 유망한 권투 선수이지만, 버는 돈을 집에 내어놓지 않는다. 이에 큰딸 정이가 집안의 생계를 위해 카페 여급으로 나간다.
3) 둘째 딸 순이는 자산가의 아들이자 신경 쇠약에 걸린 문학 청년 문주와 사귀는데, 이들의 교제를 반대하는 문주의 부모는 식객 김 서방의 꾀로 문주를 시골로 내려보내고, 그사이 김 서방이 집주름 영감을 찾아가 순이의 행실을 알리며 주의시킨다.
4) 셋째 아들 효섭은 어렸을 때 앓은 열병으로 고개가 외로 비뚤어졌는데, 그 때문에 중학교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고등소학교에 입학한다. 고등소학교 후원회 발기회에 참석한 집주름 영감은 학부형들에게 큰아들은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대구도립병원의 의사로 있고, 둘째 아들은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해 광산 기수로 있다고 거짓말한다.

기출 FLOW

작가의 기출 작품들은,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실험적인 기법으로 그려 낸 점이 특징이다. 작품에서 구현된 다양한 서술 기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2024학년도 수능] 박태원, 「골목 안」
- [2019학년도 수능] 박태원, 「천변풍경」
- [2013학년도 수능] 박태원, 「천변풍경」
- [2008학년도 6모]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28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선택률	화작	① 41%	② 34%	③ 11%	④ 8%	⑤ 6%
	언매	① 49%	② 31%	③ 9%	④ 7%	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설명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판단 경로

1) 집주름 영감이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와 방에서 나눈 대화, 즉 그들의 딸인 정이와 갑득이 어미가 벌인 말다툼에 관한 대화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렸다고 했다. 이 소리를 갑득이 어미의 아들 을득이 듣고 보고했다는 것에서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갑득이 어미를 '상것'이라 일컫는 집주름 영감이나, '쌈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라는 갑순이 할머니의 발화에서 양반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갑득이 어미를 '행랑것'이라 업신여기는 인물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판단 경로

1) 수록 지문에서 인물 간 다툼은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 다툼은 정이와 갑득이 어미의 말다툼으로, 지문에서는 다툼의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다툼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다툼은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의 다툼으로, 이는 갑순이 할머니가 불단집 뒷간에 자물쇠를 채워 갑득이 어미의 남편인 양 서방이 갇힌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역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원인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1) 수록 지문의 서술을 통해서는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
2) 갑순이 할머니가 딸인 정이에게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갑득이 어미와의 싸움을 중지시키고 딸을 얼른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짐짓 자기 딸을 나무라는 말일 뿐이다.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판단 경로

1) 갑순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양 서방을 불단집 뒷간에 가두었다고 여기는 갑득이 어미와 그렇지 않다는 갑순이 할머니와의 갈등을 곁에서 보고 있던 이웃 사람들은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라고 말한다.
2) 이러한 이웃 사람들의 말에서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갑득이 어미의 오해를 풀어 주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고 보기 힘들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판단 경로

1) '배지 못헌 행랑것', '상것', '그런 것' 등의 표현에서 이웃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찾아볼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판단 경로

1) 을득이는 자기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기 어머니인 갑득이 어미에게 전한다. 이에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자기 남편을 불단집 뒷간에 가두었다고 여기고 그에게 화를 낸다.
2) 이는 정이와 싸운 날 갑순이 할머니 내외가 자기를 '상것'이라 일컬은 것을 전해 듣고 갑득이 어미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앙금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앙금이 씻기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9	인물의 심리와 태도				정답 ④
선택률	화작	① 4%	② 3%	③ 6%	④ 83%	⑤ 4%
	언매	① 3%	② 2%	③ 4%	④ 88%	⑤ 3%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정답 설명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판단 경로

1)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게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뭇 해서, 그 더러운 뒷간'에 가뒀냐며 갑순이 할머니의 행위[→ 양 서방을 뒷간에 가둔 것]와 동기[→ 양 서방에 대한 미움]를 함께 비난하고 있다.
2)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뒷간에 자물쇠를 채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뒷간에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랬다며 갑득이 어미가 자신에게 씌운 혐의, 즉 양 서방이 미워서 그를 뒷간에 의도적으로 가뒀다는 혐의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판단 경로

1)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라는 갑득이 어미의 말에서, 그는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양 서방이 있는 뒷간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글쎄 가둬야만 헌단 말예요?',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라는 말로 갑순이 할머니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판단 경로

1)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그가 뒷간에 양 서방이 있는 줄 알면서 일부러 문을 잠가 버렸다는 갑득이 어미의 주장이 '괜한 소리'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2) 또한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라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자신에게 이러한 혐의가 주어진 것이 억울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판단 경로

1) [C]에서 갑득이 어미는 자기 남편이 뒷간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갑순이 할머니가 '들구두 모른 체'하고 문을 '그냥 잠가 버린 거'라고 추측하며 '모르구 자물쇨 챘'다는 갑순이 할머니의 발언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2) 또한 갑득이 어미는 '모르긴 왜 몰라요.'라면서 갑순이 할머니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판단 경로

1)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양 서방을 불단집 뒷간에 계획적으로 가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다. 이에 당황한 갑순이 할머니는 [B]에서 뒷간에 양 서방이 있는지 모르고 자물쇠를 채웠다며 자신을 방어한다.
2) 하지만 [C]에서 갑득이 어미는 여전히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풀지 않고 있으므로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사이의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30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선택률	화작	① 30%	② 15%	③ 19%	④ 28%	⑤ 8%
	언매	① 35%	② 11%	③ 18%	④ 30%	⑤ 6%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설명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판단 경로

1)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딸이 '상것'인 갑득이 어미와 다툰 것이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2) 갑득이 어미를 '배지 못헌 행랑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 역시 남편인 집주름 영감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며 같은 양반이 아닌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은 '하늘 보구 침 뱉기'라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판단 경로

1) 집주름 영감은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갑득이 어미를 '상것'이라고 칭하며 폄하하고 갑순이 할머니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 대화 내용이 갑득이 어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 내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집주름 영감이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갑득이 어미의 악감정은 갑득이 어미의 남편인 양 서방이 불단집 뒷간에 갇히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 표면화된다.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뒷간의 문을 잠갔다고 여기지만, 양 서방이 자기가 소리를 내지 못해 갑순이 할머니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잠근 것이라 밝히고 있다. 즉 양 서방은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의 갈등을 표면화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판단 경로

1) 불단집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은 뒷간에서 나갈 여러 방법을 상고하면서도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져 문을 열어 달라는 말을 외치지도 못했다고 했다.
2) 양 서방은 갑순이 할머니가 '자물쇨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뒷간에 갇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양 서방이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인 갑득이 어미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지 않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단 경로

1)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 즉 갑순이 할머니가 양 서방이 내는 소리를 모른 체하고 일부러 뒷간 문을 잠근 것이라는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 즉 갑순이 할머니가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듣고는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라며 겸연쩍게 말을 한다.
2) 이는 양 서방이 스스로를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느껴 문을 열어 달라는 말을 외치지도 못하고, 남의 집 뒷간에 갇혀 있던 자신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양 서방이 아내에게 무덤덤한(=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판단 경로

1)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이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 서방은 뒷간 문을 잠근 사람이 갑순이 할머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 수록 지문 외의 부분에서, 불단집 주인은 골목 밖 사람들까지 자기 소유의 뒷간을 사용하는 것이 싫어서 이 뒷간에 자물쇠를 채워 버리고 그 열쇠를 갑순이 할머니에게 맡기어 놓았다.

---

31 〈보기〉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 ②

선택률	①	②	③	④	⑤
화작	9%	43%	19%	9%	20%
언매	8%	49%	15%	8%	2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야.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경로 설계

1)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방식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는 방식, 그리고 그 둘이 겹쳐 나타나는 방식이 드러난다.
2) 또한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서술 기법도 드러난다.
3) 따라서 각 부분에서 어떠한 서술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그 서술 기법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해서 선지를 판단해야 한다.

〈보 기〉

1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2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3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4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정답 설명

② **㉡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판단 경로

1)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으로, 혹은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며, 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기도 한다.

2)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에서, ㉡의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서술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나중에야 비로소 갑순이 할머니의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갑득이 어미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여기서 갑득이 어미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갑순이 할머니가 '배지 못헌 행랑것'인 자신과 다투는 것을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라 여겨 정이를 나무라는 척하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임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물이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지 않으며, 서술자가 그러한 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 :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판단 경로

1) 갑순이 할머니는 '양반'인 자기 딸이 '배지 못헌 행랑것'인 갑득이 어미와 말다툼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감춘 채, 말다툼을 그치게 하려고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처럼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즉 이 부분의 쉼표와 말줄임표는, 속내를 감춘 채 적절한 말을 떠올리고 있는 인물의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시간의 지연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보기〉-3].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판단 경로

1) 을득이가 갑득이 어미에게 전한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는 부분은, 갑득이 어미가 주체가 된 말로 볼 수도 있고, 서술자가 주체가 된 서술로 볼 수도 있다[〈보기〉-2].

2) 또한 '~라 한다'를 통해 서술자는 갑득이 어미가 들은 말을 전하기만 하고 갑득이 어미의 편에 서지는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경로 이탈

예컨대, 만약 이 부분에서 서술자가 갑득이 어미의 편에 서서 서술하려 했다면 '그딴 소리를 지껄이더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④ **㉣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판단 경로

1) ㉣에서는 여러 개의 쉼표가 연이어 사용되었다.

2) 이를 통해 양 서방이 뒷간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나,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느껴져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보기〉-3].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 :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판단 경로

1) '오오'라는 감탄사 이후 쉼표가 연이어 사용되고 있다.

2) 이를 통해 양 서방이 앞서 제공한 정보, 즉 갑순이 할머니가 불단 집 뒷간에 자물쇠를 채울 때 자기가 소리를 내지 못해 갇히게 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이 해당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이 드러난다[〈보기〉-3].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이감이 만들면 기출문제집도 다릅니다!

이감으로 기출 문학

수능 대비의 기본이자 필수인 기출문제,
이감이 제대로 된 국어 기출 학습법을 제공합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올해 수능의 화법과 작문은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지문의 내용은 평이했지만 선지들이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지를 모두 읽고도 정답을 찾지 못해 또다시 읽거나,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킬러 문항 논란이 일면서, 지문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지문 구성은 '발표(35~37번)', '대화 - 설득하는 글(38~42번)', '설득하는 글(43~45번)'로, 화법과 작문에 자주 출제되던 세트들이 출제되었다.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발표', '대화', '설득하는 글' 등의 세트를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문제를 푸는 데 생소함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선지들이 까다롭게 출제된 만큼 앞으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문제 풀이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는 언제나 그렇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작문(43~45번)'에서만 기후 변화라는 비슷한 소재가 출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자체보다는 각 세트에서 다루는 문항을 위주로 그 패턴을 학습해 볼 것을 권한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발표) 눈을 개폐하는 두 물고기

화법 세트에 '발표'가 출제되었다. '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형식이다. 지문의 주제는 눈을 개폐하는 두 물고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내용도 평이해서 지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35번), 발표 계획(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유형들이다. '발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형식인 만큼 '발표'의 각 문항을 구성하는 선지들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된다.

[38~42] 화법-작문 통합(대화-설득하는 글)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계승 및 발전 방법

'대화 (가)'와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 (나)'로 구성된 화법-작문 통합 세트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글쓰기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완성하는 형식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지문은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계승 및 발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교적 쉽게 서술되어 있어 지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항 역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38번), 대화의 특정 부분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39번), 대화가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40번), 글쓰기 방식(41번), 고쳐 쓰기(42번)'로 통합 세트에서 자주 다루던 익숙한 유형들이다. 다만, 40번 문항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언뜻 보기에 모든 선지들이 다 적절한 듯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판단하기 위해 다소간의 시간을 소요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40번

정답 설명 : ①

(가)에서 '학생 1'이 대화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가)에서 '학생 2'는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나)의 문단3에서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내용으로 활용하였다. 사실 이 때문에 ①번 선지의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라는 진술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통 한지가 유럽에서는 관심이 높은 데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①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② (가)에서 '학생 3'은 '전통 한지가 보존성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전통 한지의 장점은 보존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데, 그중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와 같이 세계 기록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나)의 문단2에 반영되어 있다.

③ (가)에서 '학생 3'은 '전통 한지는 빛에 안정적'이며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고 오래간'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빛에 안정적이라는 내용을 제외한 '질기고 보존성이 좋다'라는 내용만이 활용되어 (나)의 문단2에 반영되어 있다.

④ (가)에서 '학생 2'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닥나무만 사용해야'하며 '또 기술 전수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재료 측면'과 '제작 기술 측면'으로 범주화되어 (나)의 문단4에 반영되어 있다.

⑤ (가)에서 '학생 2'는 '전통 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 전통 한지 사용을 장려하고 문화재 수리에도 전통 한지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나)의 문단4에 반영되어 있다.

[43~45] 작문(설득하는 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자세

작문 세트의 지문은 학생이 학교 신문이나 교지에 게재한 '초고'의 형식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수능에서 작문 지문의 주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는데,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어 지문을 쉽게 독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항 역시 '글쓰기 계획의 반영(43번), 조언에 따른 제목 작성(44번), 자료 활용 방안(45번)'으로 작문에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었던 만큼 문제 풀이에 생소함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작문 세트에서 '자료 활용 방안' 문항의 오답률은 대체로 높게 나오는 편이고 이번에는 조금 더 높았던 만큼 해당 문항에서는 지문과 <보기>, 선지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며 풀이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고난도 문항 해설 45번

정답 설명 : ①

'초고'의 2문단에서 청소년이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와 '방안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ㄱ-1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2문단에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 이미 방안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를 그 이유로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 설명

② '초고'의 4문단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ㄴ에 따르면 청소년 기후 변화 대응 세미나 참여자들은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의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으로 4문단에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③ '초고'의 1문단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ㄷ에서는 '2020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평생 동안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ㄷ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로 1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④ '초고'의 3문단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우선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의 대응 방안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부터 사회적인 차원의 것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ㄱ-1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참여 기회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고, ㄱ-2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기후 변화 대응 활동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ㄱ-1과 ㄱ-2를 활용하여 청소년 다수가 참여한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사례로 3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⑤ '초고'의 4문단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ㄱ-2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기후 변화 대응 활동들 가운데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나 '기후 변화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ㄴ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에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하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의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학교가 지원할 사례로 4문단에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01. 언어

▸ **총평**

언어는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국어사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었다. 교육 과정 내에서 다뤘던 개념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선지별로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묻는 지문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국어사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지가 정답 판별의 핵심 요소였다. 수험생들이 자주 다뤄 보지 않은 제재였을뿐더러 중세 국어의 자모 체계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35번

문항 설명

1)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2) 제시된 자료를 제자 원리에 따라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는지가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정답 설명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러울(너구리)'이다. 또한 초성자의 반설음자는 '어름'의 'ㄹ'이고, 종성자의 반설음자는 '별'의 'ㄹ'이다. '러울'의 '러'에는 초성자의 반설음자 'ㄹ'이 쓰였고, '러울'의 '울'에는 종성자의 반설음자 'ㄹ'이 쓰였기 때문에 '러울'은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오답 설명

① 훈민정음의 기본자 중 중성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② 지문에 제시된 <초성자 용자례>와 <종성자 용자례>를 비교해 보면, 초성자의 기본자 중 'ㅇ'은 종성자에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문에서 가획자는 9자라고 되어 있지만, 제시된 <초성자 용자례>에는 8자만 표기되어 있다. 제시되지 않은 가획자 'ㆆ'은 아음이 아닌 후음에 속한다.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ㅓ'의 예시 단어는 '브섭'이다. '브섭'에는 반치음 이체자인 'ㅿ'만 쓰였다. 순음 기본자인 'ㅁ'은 쓰이지 않았다.

[37] 형태론

'ㅎ' 말음 용언의 활용을 이해하고, 자료에 적용된 용언 분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용언들의 분류 기준을 파악한 뒤, 각 용언이 그 기준에 맞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37번

문항 설명

1) 'ㅎ' 말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2) 제시된 유형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뉘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정답 설명 : ①

<보기>에 제시된 유형을 정리해 보면, ㉠-1은 불규칙 활용을 하면서 양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만나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 ㉠-2는 불규칙 활용을 하면서 음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만나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 ㉡은 불규칙 활용을 하면서 음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만나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진 것, ㉢-1은 규칙 활용을 하면서 활용형의 줄어듦이 불가한 것, ㉢-2는 규칙 활용을 하면서 활용형의 줄어듦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조그맣-+-아'가 '조그매'가 되는 것은 ㉠-1과 활용의 유형이 같지만 '이렇-+-어서'가 '이래서'가 되는 것은 ㉡과 활용의 유형이 같다.

오답 설명

② '꺼멓-+-어' → '꺼메'와 '뿌옇-+-었다' → '뿌옜다'는 모두 ㉠-2와 활용의 유형이 같다.
③ '둥그렇-+-었다' → '둥그렜다'와 '멀겋-+-어' → '멀게'는 모두 ㉠-2와 활용의 유형이 같다.
④ '낳-+-아서' → '낳아서'와 '땋-+-았다' → '땋았다'는 모두 활용형의 줄어듦이 불가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다.
⑤ '넣-+-어' → '넣어'와 '쌓-+-아' → '쌓아'는 모두 활용형의 줄어듦이 불가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다.

[38] 의미론

담화 맥락 안에서 여러 언어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익숙한 형식의 문항이며 묻고 있는 지점 역시 크게 난해하지 않았으므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단, 각각의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 풀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39] 통사론

문장 성분 중 부사어의 실현 양상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유형이 최근 꾸준히 출제되었으므로 그 형식은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장 속에서 실현된 부사어의 형태와 쓰임을 자세히 묻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으므로 풀기가 까다로웠을 것이다.

02. 매체

▸ 총평

올해 수능의 매체는 대체로 평이했으며,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는데, 이는 작년 수능에서 매체가 너무 쉽게 출제되었던 탓이다. 또한 매체는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과목으로 묶여 치러지는 만큼 오답률이 항상 높은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편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매체에서는 매 평가원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매체 자료를 보여 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수능의 매체에서는 두 번째 세트(44~45번)에 '학교생활 안내 앱을 최초 실행할 때의 화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매체 세트에서 항상 다뤄지는 '매체 자료의 특성(41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42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3번), 매체 자료의 생산 및 수정(45번)'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색다른 매체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 과정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수능의 매체는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EBS 교재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매체들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EBS 교재를 통해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향후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언어-매체 통합(텔레비전 방송-누리집) 어문 규범 변화

언어 - 매체 통합 세트에서는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출제된 바 있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동아리 누리집'이라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각각 출제되었다. 지문은 '어문 규범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평이한 편이어서 지문 독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은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40번), 매체 자료의 특성(41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42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3번)'으로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의 매체에서 자주 다루었던 유형들이 출제되었다. 때문에 평소 매체별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고, 해당 매체에서 자주 출제되는 선지들을 학습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44~45] 매체(앱 최초 실행 화면-누리 소통망) 학교생활 안내 앱의 정보 수정

매체 세트에는 '앱의 최초 실행 화면'과 '누리 소통망 대화'가 각각 등장하였다. 앱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재작년 수능에도 출제된 바 있지만, 그동안은 앱의 첫 화면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앱을 최초 실행할 때 뜨는 화면을 제시하며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새롭다고 하기에는 문항 자체가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지문에는 '학교생활 안내 앱'과 해당 앱의 도움말 수정을 위한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가 제시되고 있는데, 정보량이 적고 내용이 평이했다. 문항 역시 '매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44번), 매체 자료의 생산 및 수정(45번)' 등으로 그동안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던 유형이어서 문제 풀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5번 문항에서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게 하고 있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 해설 45번

정답 설명 : ⑤

(나)에서 '미희'와 '동주'는 '검색' 메뉴 도움말을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때 '미희'는 '자료 찾는 게 빨라지겠네. 그럼 도움말에 이 내용[→ 앞선 대화에서 '진아'가 언급한 항목별, 기간별, 결과 내 검색]도 넣자.'라고 하였다. 이 대화를 바탕으로 '수정한 화면'에는 '검색' 메뉴 옆에 '항목별, 기간별, 결과 내 검색으로 빠르게 찾기'라는 도움말이 새로 추가되었다. 하지만 '미희'와 '동주'의 대화에서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고, '검색' 메뉴의 도움말 역시 이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⑤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① (나)에서 '창규'는 '학습 & 활동 자료' 메뉴의 하위 항목에 자율 활동, 진로 활동이 새로 생기는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정호'는 해당 내용들을 반영해야겠다고 응답하였다. 메뉴 항목 변화에 대한 해당 대화가 반영되어 '수정한 화면'의 '학습 & 활동 자료' 메뉴의 하위 항목에는 기존에 없던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② (나)에서 '가원'은 예약 가능한 학습 공간에 도서관 자습실과 모둠 활동실이 추가되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동주'는 기존의 컴퓨터실도 포함해서 예약 가능한 곳을 모두 알려 주자고 하였다. 이용 예약이 가능한 공간 추가에 대한 해당 대화가 반영되어 '수정한 화면'의 '학습 공간 이용 예약'에 대한 도움말에는 도서관 자습실과 모둠 활동실이 추가되었다.

③ (나)에서 '정호'가 '공지 사항' 도움말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가원'이 '그 정도는 알려 주지 않아도 아니까 없애자.'라고 응답하였다. '공지 사항' 메뉴 도움말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대화가 반영되어 '수정한 화면'에는 '공지 사항'에 대한 도움말이 삭제되었다.

④ (나)에서 '창규'가 '게시판' 도움말을 없애기는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미희'가 '게시판' 메뉴의 조회 수가 아직 꽤 많다는 점을 근거로 그냥 놔두자고 응답하였다. 메뉴 이용 빈도에 대한 해당 대화가 반영되어 '수정한 화면'에서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III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언

01. 섣부른 난이도 예측은 금물이다.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쉽게 출제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쉬울 거라고 예상했다가 어렵게 출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볼 수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평소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틀리면 위안 삼아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라며 문제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 가지 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02. 독서 영역에서 실력을 충분히 함양할 필요가 있다.

독서 영역에서 굳건한 실력을 길러 놓아야 80분의 국어 시험 운용이 순조로울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지문이 다소 쉬워지고 선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띠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독서에서 강해지기 위해, 수능에 출제될 만한 제재가 담긴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에 나올 다양한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량이 많은 지문, 이해가 어려운 지문, 불친절한 지문 등 다양한 지문에 자신을 노출시켜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문 이해 못지않게 선지 독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특히 길고 복잡한 선지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러한 선지들에서 틀린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독서 영역은 지문의 구조, 제재, 문제 유형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 따라서 특정 경향에만 익숙해지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출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03. 문학 영역은 EBS 연계 지문과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 출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문학은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와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EBS 연계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수능에 출제될 만한 EBS 작품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학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비연계 지문은 난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장르별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익힌 후에는 실전 문제를 통해 낯선 작품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 대상의 특성, 화자의 정서·태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작품에 대한 독해 못지않게 선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최근 문학 선지들의 내용 밀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이 선지를 주관적으로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부한 작품이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선지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해당 선지의 논리에 맞게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선지의 표현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작품 내용을 선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익혀 두거나,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

04.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선택은 신중히 하되, 선택 후에는 공부에 매진하자.

선택과목은 수험 생활 내내 과목 선택을 고민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보정 절차를 만들어 특별히 어느 쪽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고 수능 직전까지 유리한 과목만 찾아다니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참고로, 화법과 작문은 개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적은 대신 꾸준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언어와 매체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 두면 유리한 대신 구체적인 용례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Ⅳ 수능과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론 [1~3]	독서에서의 초인지	수능특강 282쪽	2023 이감 시즌2 1차 2023 이감 ON 3차
사회 [4~7]	선거 보도 방식과 선거 방송 토론회	수능특강 137쪽 (이감 중요도 B)	2023 이감 시즌6 1차 2023 간쓸개 시즌6 1차
기술 [8~11]	결측치와 이상치의 배제	수능특강 199쪽 (이감 중요도 B)	2023 이감 시즌2 1차 2023 이감 시즌3 1차 2023 이감 ON 3차 2023 이감 ON 5차 2023 파이널 엣지 2차
인문 통합 [12~17]	한비자와 유학자들의 노자에 대한 이해	수능특강 242쪽 (이감 중요도 AA)	2023 이감 시즌2 1차 2023 이감 시즌5 4차 2023 이감 ON 3차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김원전」	수능완성 145쪽 (이감 중요도 AA)	2023 이감 시즌5 6차 2023 간쓸개 시즌4 2차 2023 간쓸개 시즌5 2차 2023 간쓸개 시즌6 4차 2023 간쓸개 시즌6 10차 2023 파이널 간쓸개 I
현대시 + 수필 [22~27]	(가) 김종길, 「문」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	비연계 수능특강 107쪽 (이감 중요도 B) 비연계	2023 파이널 엣지 1차 2023 간쓸개 시즌3 4차 2023 간쓸개 시즌6 8차
현대소설 [28~31]	박태원, 「골목 안」	비연계	-
고전시가 [32~34]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 (나) 유박, 「화암구곡」	수능특강 66쪽 (이감 중요도 A) 비연계	2023 이감 시즌3 1차 2023 이감 시즌6 5차 2023 이감 ON 5차 2023 간쓸개 시즌1 8차 2023 간쓸개 시즌2 3차 2023 간쓸개 시즌3 1차 2023 간쓸개 시즌6 4차 2023 간쓸개 에센셜 01 2023 간쓸개 에센셜 02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눈을 개폐하는 두 물고기 (발표)	비연계	2023 이감 시즌5 2차 2023 이감 시즌5 6차 2023 이감 시즌6 6차 2023 화법과 작문 N제
화법-작문 통합 [38~42]	전통 한지의 우수성과 계승 및 발전 방법 (대화-설득하는 글)	비연계	2023 이감 시즌6 2차 2023 이감 시즌6 5차 2023 이감 시즌6 7차
작문 [43~45]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자세 (설득하는 글)	수능특강 233쪽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K-농업의 특징)	2023 이감 시즌3 1차 2023 이감 시즌3 2차 2023 이감 ON 5차 2023 화법과 작문 N제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국어사 [35~36]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및 단어의 변화 양상	수능특강 107쪽 수능완성 178쪽 수능완성 233쪽	2023 이감 시즌4 2차 2023 이감 시즌5 6차 2023 이감 시즌6 5차 2023 언어와 매체 N제
형태론 [37]	용언의 활용 유형	수능특강 66쪽	2023 이감 시즌3 4차 2023 이감 시즌6 1차 2023 이감 ON 7차 2023 언어와 매체 N제
의미론 [38]	담화 요소	수능특강 38쪽 수능특강 81쪽	2023 이감 시즌2 1차 2023 이감 시즌5 4차 2023 이감 시즌6 3차 2023 이감 ON 3차 2023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9]	부사어	수능특강 231쪽	2023 이감 시즌1 1차 2023 이감 시즌6 9차 2023 이감 ON 9차 2023 언어와 매체 N제
언어-매체 통합 [40~43]	어문 규범 변화 (텔레비전 방송-누리집)	비연계	2023 이감 시즌3 1차 2023 이감 시즌5 4차 2023 이감 ON 5차
매체 [44~45]	학교생활 안내 앱의 정보 수정 (앱 최초 실행 화면-누리 소통망)	비연계	2023 이감 시즌2 1차 2023 이감 ON 3차

독서론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수능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초인지'에 대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2 1차
2023 이감 ON 모의고사 3차

오늘날 독서 능력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초인지'란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통제하는 정신 작용을 말한다. 능숙한 독자는 초인지에 의해 읽기 목적을 인식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여 읽기 방법이나 전략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에 효과적으로 이른다.

초인지적 읽기는 읽기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배경지식과 같은 인지적 자원에 대한 앎과 그것의 가용 여부에 대한 앎인 '초인지적 지식', 자신의 사고나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에 해당하는 '초인지적 제어'의 두 정신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초인지적 지식'은 제어와 관련한 기능들이 때맞추어 동원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초인지적 제어'는 보다 세련된 인지적 자원의 습득을 돕는다.

[A]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떠올려 보기, 배경지식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글의 내용을 예상해 보기 등은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읽기 계획을 세우고 훑어보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기 등은 제어 작용의 일환이다. 읽기 중에도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내용을 예상하거나 이해한 바를 떠올려 보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읽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다시 읽기, 그리고 읽기 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밑줄 등의 표시를 동원하고 도표를 적극 활용하기, 사전 활용하기 등의 읽기 전략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읽기 후에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다시 읽기, 이해한 바를 요약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삼기, 계획대로 읽었는지 점검하기 등의 제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인지적 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읽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전략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 인터넷 환경에서의 읽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초인지적 읽기의 숙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고, 정형화된 책 형태와 달리 문서들 간 연결이 하이퍼링크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순간 읽기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독서

사회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수능 지문이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었다면, 이감 모의고사 지문과 간쓸개 지문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논의를 함께 다루었음.
- 또한 수능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감 모의고사 지문과 간쓸개 지문에서도 기한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다루었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정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6 1차
2023 간쓸개 시즌6 1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방송 통신 위원회나 언론 중재 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건의하는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는 예비 후보자 등록 게시일의 전날에 설치되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한 반론권 행사는 심의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달리, 반론 보도 청구와 그에 따른 반론 보도가 각각 10일 이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다음 호의 발행일이 선거일 전이면 48시간을 ㉠넘기더라도 다음 호에 반론 보도를 하면 되지만, 그 발행일이 선거일 후이면 48시간 이내에 일간 신문에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반론권 규정은 왜곡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선거일 전에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유권자의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해 왔다. 제93조는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나 인쇄물, 녹음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첨부, 상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게시물이 속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 취지는 서로 다른 신념을 지닌 집단 간의 대결 양상이 심화되어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2011년 말 헌법 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 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독서

기술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수능 지문이 '이상치의 배제 기법'에 대해 다루었다면, 그와 동일한 기법을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다루었음. 수능 지문의 A 기법이 이감 모의고사 지문의 RANSAC에 대응함.
- 또한 수능 지문 <보기> 문항의 B 기법 역시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다룬 회귀 분석에서 파생한 것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2023 파이널 엣지 2차

회귀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령 광고비와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귀 분석에서는 (광고비, 판매량)와 같은 순서쌍 형태로 수치가 입력된 데이터를 2차원 좌표평면에 나타낸 뒤 모든 데이터들과의 최단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함수인 '적합 모델'을 찾는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로부터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데이터인 '이상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적합 모델을 ⓐ 찾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치의 영향이 최소화된 적합 모델을 찾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무작위 표본 지지법(RANSAC)'이 대표적이다.

RANSAC에서는 우선 사용자가 정한 일정 개수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으로 삼고, 이들을 모두 지나는 임의의 적합 모델을 찾는다. 만약 추출한 ㉠ 표본의 개수가 두 개라면, 적합 모델은 이들을 지나는 직선의 함수이다. 임의의 적합 모델을 찾은 뒤에는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과 적합 모델 사이의 최단 거리를 전부 계산한다. 이때 최단 거리가 특정 ㉡ 임계치를 넘어서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간주되고, 그 이하의 데이터는 정상치로 간주된다. 적합 모델과 충분히 가까워서 그것을 지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적합 모델과 정상치 개수의 조합이 저장되면서 첫 번째 시행이 마무리된다.

이후의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와 동일한 개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를 지나는 적합 모델을 찾아 그 정상치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정상치 개수와 비교한다. 이때 해당 시행에서의 정상치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만 기존에 저장된 적합 모델과 정상치 개수의 조합을 폐기하고, 해당 시행에서 찾은 조합으로 대체한다. 미리 정해진 ㉢ 시행 횟수만큼의 시행이 끝나면 각 시행에서 찾은 적합 모델들 중 가장 많은 정상치를 가지는 적합 모델이 남게 되며, 이 적합 모델과 실제 정상치 사이의 최단 거리의 합이 작을수록 RANSAC의 성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 횟수의 값이 커서 적합 모델을 찾는 횟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독서

기술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수능 지문이 '이상치의 배제 기법'에 대해 다루었다면, 마찬가지로 이상치를 탐색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유사한 원리의 기법들을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다루었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2 1차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3 1차
2023 이감 ON 모의고사 3차, 5차

머신 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에는 다량의 학습 이미지가 필요하다. 양품과 불량품 이미지가 각각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며, 각 이미지들은 레이블링을 거쳐야 한다. 레이블링은 사람이 직접 학습 이미지를 보고 판별하여 불량 유무의 정답을 표시해 두는 것을 말한다. 레이블링 후에는 이미지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이미지 분석을 거친다. 이미지 분석은 제품의 특성들에 대한 수치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길이, 직선의 수, 무늬의 개수 등 수많은 특성이 활용될 수 있다. 두 가지 특성만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미지 분석 직후에 개별 제품은 <그림>과 같이 두 특성의 값을 X와 Y로 삼는 평면에서 양품일 때 흰 점, 불량품일 때 검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대개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수많은 데이터 중 오류로 인해 잘못 측정된 값이 ⓐ포함된 데이터인 '이상치'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제거되어야만 한다. 보통은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인 이상치 지수를 각 항목에 대한 측정값들의 평균값, 중앙값 등을 토대로 정하고 그 값이 임곗값보다 큰 것을 이상치로 판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상치의 사례가 극히 적어서 임곗값을 정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럴 때 정상 데이터들의 분포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인 '밀도 기반 공간 군집화(DBSCAN)'가 ⓑ사용된다.

독서

인문 통합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수능 지문이 '노자'가 제시한 '도가의 도'와 관련된 다른 사상가들의 해석을 다루었다면, 이감 모의고사 지문 또한 마찬가지로 '도가의 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상가들의 해석을 수차례 다루었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2 1차
2023 이감 모의고사 시즌5 4차
2023 이감 ON 모의고사 3차

(가)

춘추 시대의 사회 혼란에 직면하여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는 도(道)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인의(仁義)를 강조하였다. 유가에서 인의는 도덕 실천의 규범이자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이치가 지닌 속성으로 이해된다. 도가의 뿌리인 노자 역시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의 회복을 말하였으나 도에 대한 이해가 유가와는 달랐다. 나아가 노자의 저서인 ㉠『도덕경』 19장에서 '절인기의(絶仁棄義)', 즉 "인을 끊고 의를 버린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듯이, 노자는 인의의 강조를 오히려 혼란 극복의 걸림돌로 여겼다.

(나)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에서 『도덕경』에 대한 해설을 담은 주석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도가 사상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양대 전란을 전후로 한 16세기부터 ㉡조선에서 발간된 『도덕경』의 주석서가 등장하였는데, 주석가의 학문적 배경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목적과 해석 체계가 각기 달라서, 이 주석서들을 그저 획일적으로 유가 사상에 입각한 해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규범이나 제도 등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한 노자의 도가 사상은 법치와 상충하는 편이지만,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을 연급하는 국면에서 도가 사상을 많이 차용하였다. 노자의 저서를 해석한 『한비자』의 「해로편」에는 대립되는 사물이 함께 번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한비자는 이에 근거하여 상벌을 내리는 권세가 군주에게만 주어져야 통치권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왕족 출신으로서 궁궐의 암투를 경험했던 한비자는 군주의 권세가 신하와 공유됨으로써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태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虛靜)을 강조하였다. 허정은 마음을 비워 고요해지는 것으로, 한비자는 이를 차용하여 통치자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도 신하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라고 주장하였다.

이감 **인사이트**

이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양재디에스타워) 3층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